

이달의 어항 ④7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아름다움이 사방에 널린 제주의 보석, 김녕항

공기 맑고 물 맑아 정신도 맑아지는



오래전 한라산 북쪽 기슭 세 개의 구멍에서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가 솟아 나왔다. 이후 세 개의 구멍을 삼성혈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삼성(三姓)'이란 제주도의 토착 성씨인 고씨, 양씨, 부씨를 뜻한다. 남방의 이국적인 기후와 향토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삼성신화(三姓神話)는 이렇게 시작한다. 좁은 듯 하지만 사방 곳곳에 아름다운 볼거리가 풍부한 큰 섬, 이달의 어항에서 찾아갈 국가어항은 바로 제주의 보석 김녕항이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김녕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1992년에는 기본 조사와 건설계획을 세운 후 2001년 기본시설을 완공하면서 항으로써 안정된 항세를 갖추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서방파제 680m, 동방파제 170m, 물양장 310m, 호안 70m, 파제벽 130m, 선양장 30m 등을 갖추었다. 수산 현황은 전업 38가구 76명, 겸업 592가구 1,184명, 지방어선 38척이 있으며, 갈치, 오징어, 방어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 생산량은 25MT이다.

김녕항은 유난히 바다가 푸르다. 밀바닥

까지 훤히 보이는 것이 남국의 바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게다가 깨끗한 바다와 어우러진 다양한 형태의 기암절벽과 해변의 질 좋은 모래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안성맞춤이다. 인접한 도로 덕분에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이 있어 짜증

이 날 염려도 없다. 김녕항은 '김녕'이란 이름의 유래처럼 부하고 편안한 마을인 것이다.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바다 바람을 맞으며 제주에서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갈치 호박국을 후루룩 먹노라면 여름이 가고 있지만 가을바다는 더욱 달콤하다고 느낄 것이다.



♣ 주변여행지

김녕항에서 깨끗한 바다에 눈을 감동시키고 갈치 호박국을 몸이 따뜻해졌다면 다음으로 비자림과 미로공원, 만장굴을 추천한다.

천연기념물 제 37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비자림'은 거목들이 군집해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자나무 숲이다. 448,165㎡의 면적에 500~800년생 비자

나무 2,800여 그루가 밀집하여 자생하고 있다. 녹음이 짙은 울창한 비자나무 숲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회복과 인체의 리듬을 되찾는 자연건강 휴양효과가 있다. 또한 주변에는 기생화산인 월랑봉, 아부오름, 용눈이오름 등이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비자림은 2005년 11월 7일 제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천년의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만장굴은 제주의 화산용암의 침하운동으로 생성된 천연동굴 중의 하나로 석주·종유석 등이 장관을 이루는 세계적인 규모의 동굴이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만쟁이굴'이라는 속칭으로 알려졌으나, 세상에 널리 공개된 것은 1958년 이후였다. 1970년 3월 28일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이 동굴은 길이가 7,416m로 세계최장이다. 굴 내부는 연중 11~21℃를 유지하여 항상 쾌적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생물이 서식하여 학술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화산 발생시 용암 분출로 형성된 '돌거북', '돌기둥', '날개벽'은 보는이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 먹거리

제주사람들이 회, 찌개, 구이, 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 갈치는 제주의 주요한 어업자원으로 영양도 높고 맛도 그만이다. 피부미용과 산후조리 등 자양강장에 좋은 전복도 추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개류는 피로해진 신경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복은 시신경의 피로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

♣ 찾아가는 길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회선 시외버스 이용, 김녕에서 하차